



“부족한 액션, 정우성 리액션으로 살렸죠”

영화 ‘보호자’ 김준한 주인공 정우성과 대적하는 성준역

배우 겸 감독 정우성이 주연과 연출을 맡은 영화 ‘보호자’에서 배우 김준한(사진)은 주인공 수혁(정우성 분)과 대적하는 성준을 연기했다.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다가 살인죄로 1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수혁은 딸의 존재를 알게 돼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하지만, 조직의 2인자인 성준은 킬러 우진(김남길)과 진아(박유나)에게 수혁을 제거하라고 시킨다. 수혁의 목숨을 노리는 건 주로 우진과 진아지만, 몇몇 장면에선 성준도 폭력에 가담한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온 대선배인 정우성과의 액션 대결은 김준한에게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한다. “제가 힘있게 나가야 하는 장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선배님(정우성)이 ‘리액션’으로 많이 살려준 것 같아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준한은 이 영화의 액션 장면 촬영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웃었다. 그는 성준이 수혁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에 대해 “평소에도 액션을 찍을 땐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엔 우리나라 국보와 같은 얼굴에 절대로 손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다. 평소 10cm 거리를 두고 연기했다면 이번엔 12cm, 13cm로 한 것 같다”며 농담하듯 말하기도 했다. 또 “선배님이 친절히 대해준 것도 제가 많이 긴장한 걸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편하게 임할 수 있게 해줬다”고 돌아봤다.

촬영 현장에서 정우성은 김준한의 상대 역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출을 끌어가는 감독이기도 했다. 김준한은 정우성이 배우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액션 아이디어를 줄 땐 너무 마음에 와 닿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편했고, 재밌게 만들어볼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2005년 밴드 이지(iZi)의 드러머로 데뷔한 김준한은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시간’, ‘슬기로운 의사생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 등에 출연했다. 영화 출연작으로는 ‘나랏말싸미’(2019)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20) 등이 있다. 김준한이 ‘보호자’에 캐스팅된 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정우성과 함께 출연한 계기가 됐다. 당시 김준한을 눈여겨본 정우성이 회식 자리에서 그에게 연락처를 물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우상이었던 분이 제 연락처를? 그럼 (번호를) 절대 안 바꿔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캐스팅 연락이 와 너무 감사했죠.” ‘보호자’에서 성준이 수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 열등감 탓이다. 그는 수혁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으려는 듯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찌질함’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김준한은 “사실 찌질한 걸 좋아한다. 찌질한데 재밌는 사람이라든지, 어딘가 마음이 가는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찌질함이란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 기대되기도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준한은 수지 주연의 ‘안나’에서 도 악역을 맡았다. 그는 “‘안나’를 찍기 전에 ‘보호자’를 찍었다”며 “‘안나’에서 연기할 땐 ‘보호자’의 경험이었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SM 신예 그룹 ‘라이즈’

K팝 ‘뉴 페이스’ 잇따라 출격

하이브 ‘보이넥스트도어’, SM ‘라이즈’, YG ‘베이비몬스터’ 등

전 세계 K팝 팬을 설레게 할 ‘뉴 페이스’들이 올해 하반기 잇따라 출격한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SM·YG 등 대형 기획사에서 올해 하반기 잇따라 신예 그룹을 선보인다. 먼저 올해 5월 데뷔한 하이브의 6인조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9월 데뷔 4개월 만에 미니 1집 ‘와이..’(WHY..)로 컴백한다.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코즈 엔터테인먼트의 첫 보이그룹으로 기대를 모은 보이넥스트도어는 5월 싱글 1집 ‘후’(WHO!)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데뷔 싱글에서 첫사랑의 풋풋한 설렘을 노래했다면, 이번 첫 미니 앨범에선 사랑에 상처 받은 소년들의 폭넓은 감정을 무대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뉴진스와 르세라핌의 열기를 이어갈 하이브의 새 걸그룹도 하반기 중에 데뷔할 전망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차기 걸그룹의 멤버를 결정하는 서바이벌 예능 ‘알 유 넥스트’(R U Next)가 곧 종영을 앞둔 만큼 여기서 배출된 최종 데뷔자가 이르면 연내에 데뷔할 가능성이 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NCT 이후 약 7년 만의 보이그룹 라이즈가 9월 데뷔한다. 라이즈는 2020년 걸그룹 에스파 이후 SM이 3년 만에 내놓는 신인 그룹으로, 가수 윤상의 아들 이찬영씨가 멤버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몰려 있다. 멤버 쇼타로, 은석, 성찬, 원빈, 승환, 소희, 엔튼(찬영) 등 7명으로 이뤄진 라이즈는 이달 초 그룹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지 4일 만에 팔로워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 달 4일 첫 싱글 앨범 ‘겟 어 기타’(Get A Guitar)로 데뷔하는 이들은 이에 앞서 오는 21일 선공개 싱글 ‘메모리즈’(Memories)를 먼저 발매한다. ‘월드 스타’ 블랙핑크를 탄생시킨 YG엔터테인먼트도 7년 만에 신예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다. 9월 데뷔하는 YG의 신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는 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된 멤버 하연, 하람, 로라, 파티타, 치키타, 루카, 아사로 구성된 7인조 걸그룹이다. 데뷔곡으로는 강렬한 힙합 장르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으로, 데뷔 앨범에는 해외 유명 프로듀서가 다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5월 공개한 프리(Pre-선) 데뷔곡 ‘드림’(DREAM)으로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차트에서 1위에 올라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뉴진스, 아이브 등 데뷔 1년여 만에 대성공을 거두는 그룹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성공 주기가 짧아지면서 하반기 출격하는 신예 그룹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인권·평화...DJ 정신 전하다”

광주 MBC,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특집 유튜브 라이브

광주MBC(사장 김낙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8월 18일)를 맞아 특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오는 17일(오후 12시)부터 18일 자정까지 36시간 동안 진행한다. 그동안 광주 MBC는 ‘5·18 39주년 기념 39시간 유튜브 라이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통합, 평화의 길을 제시한 DJ 정신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특강, 연설, 대담, 토론을 모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선

보이는 것이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추모특집 다큐 시대의 큰별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0주년 특별대담 평화의 길 김대중’, ‘시대를 통찰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강연’,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비롯해 김대중의 대선 유세,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5·18 기념사 등을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황석영, 정대철, 김광진, 이동형, 심윤환 등 다양한 인물들이 진행한 DJ 관련 인터뷰 방송 등도 볼 수 있다. 광주MBC가 오랫동안 제작하고 소장해온 DJ 관련 모든 콘텐츠가 36시간 계속 방송되는 것.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광주일보 DB>

한편 이번 광주MBC의 다양한 DJ 관련 콘텐츠를 통해 ‘민주 인권 평화의 길을 살이온 DJ 정신이 왜 지금의 시대정신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 일주일 관객 200만명

엄태화 감독의 재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 7일째인 15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지난 9일 극장에 걸린 이 영화는 굵직한 경쟁작 틈에서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을 예고했다. 전날에도 28만7000여 명을 동원해 ‘밀수’(11만7000여 명), ‘엘리멘탈’(4만9000여 명), ‘비공식작전’(3만여 명) 등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다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이날 개봉해 향후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펜하이머’를 예매한 관객 수는 전날 50만명을 넘겼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민들의 생존기다. 이병헌을 비롯해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박지후, 김도연 등이 출연했다. /연합뉴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육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

의료관광사업위원회 심의결 제190816-중-388919